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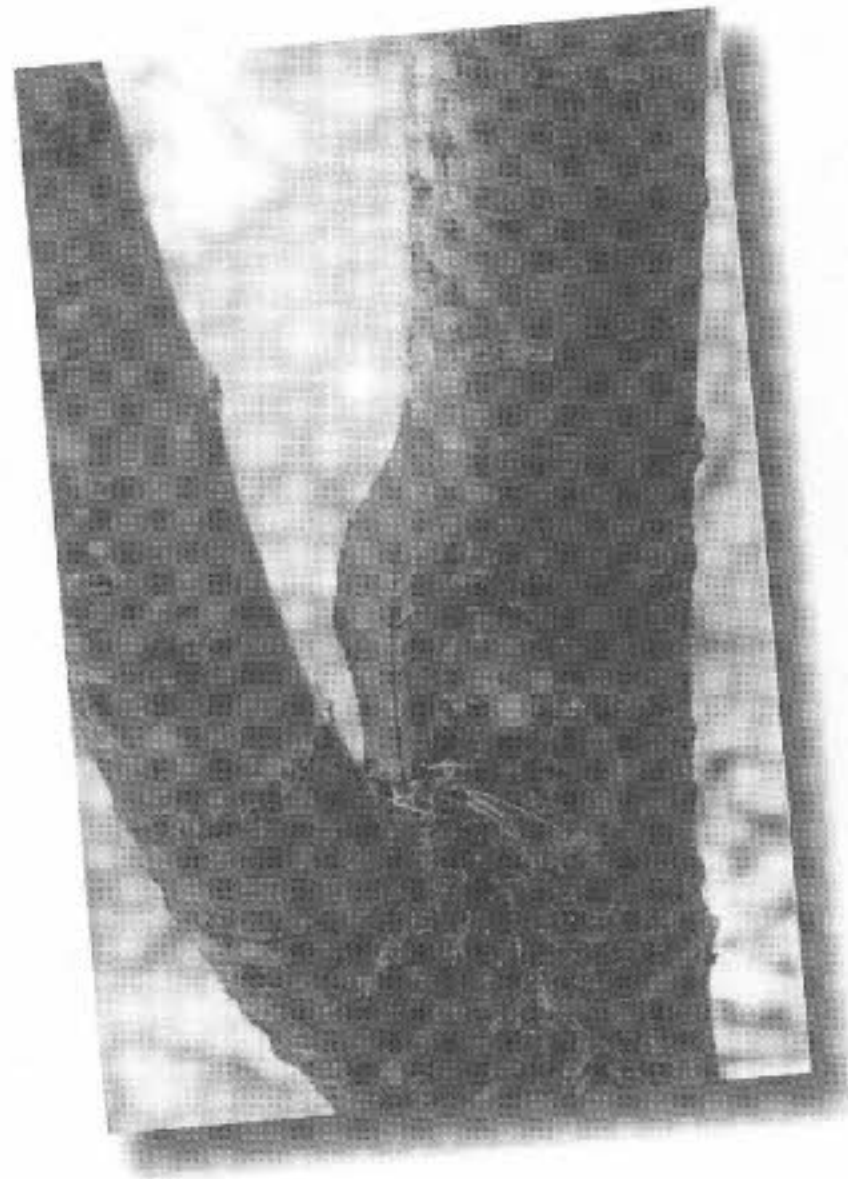
1998 겨울호

열 아홉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해주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눈물로 가슴대우며 우리들이 일어서기를 기원하는 부모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의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들 자신의 의지만 강하다면
우리 함께 희망의 정상에 올라 크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완치잔치에서... 이 은 혜(만 10세/완치어린이)

우리는 함께 뛰는 친구입니다



OB베어스
정수근 선수

제가 OB베어스에 입단했을 때, 우리팀은 백혈병어린이후원회와 인연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OB마운드에서 시구를 하는 백혈병어린이와 해마다 완치잔치에 참석해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선수들의 돈독한 정이 참 좋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언제부터인가 "소아암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운드를 뛰는 일 밖에 없는데…… 이 일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구단의 홍보과장님과 상의 하기에 이르렀고, 도루 1개당 3만원씩을 기금으로 적립,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사랑을 모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의 도루'는 올 시즌 44개의 도루를 성공케 했습니다. 마운드에 서면, 시구를 하던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OB의 승리를 위해서 공을 던지던 어린이의 모습이 저에게 적지 않은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곱 번째 완치잔치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우리 선수들보다 더 큰 승리를 한 완치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수들은 OB의 승리를 위해, 백혈병어린이들은 완치를 위해 뛰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OB의 선배들처럼 백혈병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로 남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올해도 잘해 보자구요!

정수근

가족이 함께 하는 실내놀이와 어린이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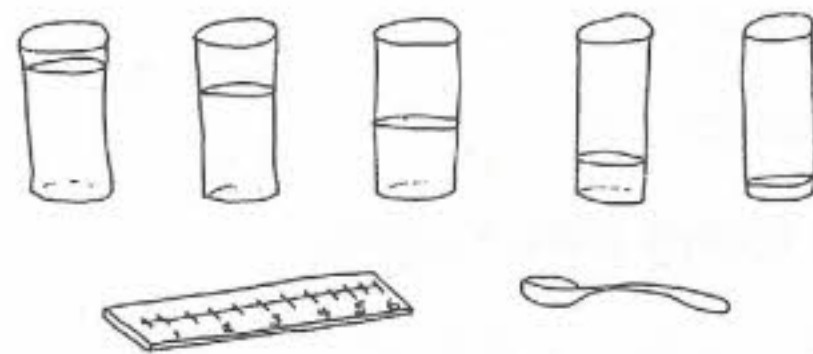
양말 꼭두각시

- 대상연령 : 만 2살 반~6살
- 준비물 : 낡은 양말, 천 조각들, 단추2개, 바늘과 실 (또는 본드), 뜨개실 조각, 매직이나 연필, 휴지심
- 과정 :
 - ① 어린이의 손을 양말에 넣어보게 한다. 이 때, 엄지를 양말 뒤꿈치에 넣어 꼭두각시의 아래턱을 만들어보도록 하여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 ② 손을 넣은 상태에서 꼭두각시의 눈, 코, 혀, 머리 등의 위치를 매직으로 표시해 둔다.
 - ③ 겹치지 않도록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양말 속에 휴지심을 넣는다.
 - ④ 단추를 실로 꿰매거나 본드로 붙여 눈을 만든다.
 - ⑤ 뜨개실로 머리카락들을 만든다.
 - ⑥ 천조각으로 혀와 귀를 만들어 붙이거나 꿰맨다.
 - ⑦ 매직으로 눈썹과 콧구멍을 그려 넣는다.
 - ⑧ 인형은 사람, 동물, 그리고 괴물도 될 수 있다.
 - ⑨ 가족수대로 만들어 연극을 해봐도 재미 있겠다.



물 실로폰 ♪~♪

- 대상연령 : 만 2살 반~6살
- 준비물 : 4-6개의 긴 유리잔들 (되도록 같은 모양과 크기로 준비) 금속 스푼
- 과정 :
 - ① 각 유리잔에 각각 다른 양으로 물을 붓는다.
 - ② 물이 채워진 유리잔들을 일렬로 세워놓는다.
 - ③ 스푼으로 부드럽게 유리잔을 두드리면서 음색의 차이를 느껴본다.
 - ④ 유리잔의 물을 덜어내거나 더함으로써 음색을 조절할 수 있다.
 - ⑤ 유리잔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봐도 좋을 듯!



■ Tea-Time을 갖습니다!!

11월 26일, "Tea-Time 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제일생명의 집'에 대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질병 및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일생명의 집'을 이용하지 않고 계신 한아부모님들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 :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5시
- 장소 : 제일생명의 집 4층
- * 모임시 한아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일생명의 집 3층에서 놀게 됩니다.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교실

■ 우리문화체험학교

- 기간 : 1월 27일-29일
- 장소 :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와 주변
- 내용 : 우리의 놀이문화(공기, 투호, 윷놀이, 필교, 비석치기 등), 생활문화(전통문양탁본하기, 형겔 인형만들기, 한지공예, 염색하기 등), 음식문화(떡메치기, 강정만들기, 달고나, 감자전 등)체험하기
- 대상 : 초등학생
- 회비 : 3만원(1일 참가시 1만5천원)
- 문의 :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0342)756-9121

■ 어린이문화교실

- 기간 : 1월 4일-2월 5일(월,목반/화,금반)
- 장소 :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 내용 : 어린이유지컬, 핸드벨연주교실, 매직풍선교실, 재활용만들기교실, 어린이판화교실, 애니메이션제작교실
- 대상 : 초등학생
- 회비 : 어린이유지컬, 핸드벨연주 5만원, 그 외 4만원
- 문의 :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0342)756-9121

■ 모자가 필요한 어린이는 여길 보세요.

후원회에서는 99년 1월부터 모자후원을 개시합니다. 지난 호 회보의 '사랑이 모이는 곳'에 소개된 준혁이와 후영이 어머니께서 후원하신 모자를 지원합니다. 항암치료로 모자가 필요한 어린이는 후원회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예쁜 모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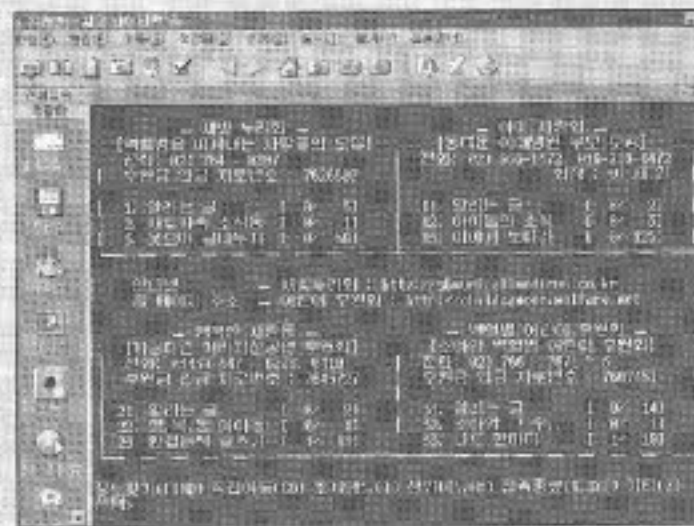
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자지원을 하기 위해 모자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뜨개 모자 또는 기성 모자를 후원하실 분은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 클릭하면 후원회가 보입니다.

후원회의 모든 것을 홈페이지와 천리안 밝은마음동호회 포럼내 후원회 방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childcancer.welfare.net/>



· 천리안 밝은마음동호회 포럼내 후원회방

■ "컴퓨터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경상도에서 살고 있는 17살 김우호(가명)는 지난 96년 5월 악성림프종을 진단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자가골수이식인 말초혈액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고 강동성심병원에서 현재까지 2년동안 재발없이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산업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우호는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지금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윈도우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펜티엄급 컴퓨터와 통학시 필요한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기증에 뜻이 있으신 분은 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 천리안 go mind 하셔서 [88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동하시면 백혈병어린이후원회 방이 있습니다.

성환아빠에게

6년전 여름, 병원에 다녀온다며 당신 손을 놓고 집을 나서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우리식구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터널이었지요.
그래도 우리는 터널밖에는 희망과 행복이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었고,
우리 네식구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환이 치료를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터널 밖으로 나와 이젠 한숨 돌리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둠이 기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 8월 성환이의 재발판정은 우리 식구들을 다시금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지요.
다시 시작된 성환이와 나의 병원생활
그리고 또 다시 집과 가게를 혼자 뛰어 다니는 당신,
혼자 쓸쓸한 집에 남은 경화.
모두가 혼란으로 또 다시 빠져 들었어요.

그러나 성환 아빠, 우리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요.
그 어려운 항암치료에도 강하고 의젓하게 치료 잘 받는 우리 성환이가 있잖아요.
당신과 나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 용기를 가져요.

병원문을 내서는 당신의 붙어진 어깨를 봅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여보 힘내세요 사랑해요.

1998.12.

당신의 동반자 순이

성환이는 지난 92년 7월 골육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종결했으나 올 8월 재발, 새로 치료를 하고 있는 열두살 남자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곳곳하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환이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사랑으로 밀지 않아서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편집자 주>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

98년 겨울호에는 올해 소아암치료를 종결한 어린이중 의료진의 기억 속에 남는 어린이를 소개한다.



이대동대문병원 소아과 유경하

아팠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고은이를 치료하면서 느낀 보람은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간모세포종이라고 말해주던 그날 건장한 체격의 고은이 아빠는 병실을 뛰쳐나가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나를 찾아와 '저 어린것이 간암이라니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사실 두렵기는 했지만 꼭 살려보자고 몇 번을 설득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저 세상으로 보낸 형민이의 간절한 얼굴이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형민이는 아직 내 마음속에는 저 세상으로 보내지 못한 초등학교 5학년의 급성백혈병을 앓았던, 나를 무척 따르던 아이였다. 살고 싶어하던 그 아이의 애절한 얼굴이 생각났다. 고은이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아이였다면 아마 '선생님 저를 꼭 살려주세요.'하고 형민이처럼 말했으리라. 나는 다시 비장한 각오로 고은이네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1시간여 회의 끝에 살려달라는 엄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그 부모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책임감을 통감했다. 시작이 힘들었으나 고은이와 엄마는 꾀꾀하게 잘 견뎠다. 종양성 출혈이 된 줄 알고 긴장했던 시간도 무사히 넘기고 항암제의 부작용도 잘 이겨냈다. 그러나 수술을 위해 복부단층촬영을 한 우리는 또 한번의 실의에 빠졌다. 줄어든 덩어리가 간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부위에 집중되어 고난도의 수술이 요구되었다. 이제 겨우 생후 몇 개월인 것이 견디어 내기에는 너무 큰

수술이었다. 하지만 고은이는 모든 것을 이겨냈다.

기적적인 수술 결과를 보이고 우리 모두는 고은이가 완벽하게 살아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집으로 보낸 다음날 개인 병원 응급실이라는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개인병원 응급실로 갔고 기관지 삽관을 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는 전화였다. 아니 치료가 끝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람. 어제 외래도 잘 다녀 갔지 않았던가?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나 옆의 전공의가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라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몇 시간후 우리 병원에는 방긋 웃는 고은이 모습이 나타났다. 지나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순간적인 경련이 오래 지속되어 호흡이 중지된 상태였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고은이가 외래로 추적관찰을 위해 진찰을 받으러 오면 그 일련의 사건, 특히 마지막 사건이 떠올라 생각이 나서 정말 아찔하다. 나의 마음이 이 정도니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무 것도 모르는 저 조그만 고은이가 죽음의 문턱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다니. 그저 대견하기만 하다.

고은이가 소아암 완치잔치에서 완치메달을 받았다. 고은이는 자기자신이 나를 포함한 치료자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곳이 그저 재미있기만 한 것 같다.

0 | 상현. 삼성의료원 개원 직후인 1995년 1월,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몇명되지 않은 아이 중 하나였다. 골수검사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하고 항암화학요법을 곧 시작하였다. 가족의 아픔과 마지막 희망에도 불구하고 항암화학요법 제7일, 제14일째 되는 날 골수검사결과 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강력한 치료법으로 바꾸어서 다시 완해도입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방식을 바꾼 후 완해를 이루었고 2차 치료를 시작한 후 복통과 고열이 있으면서 복부의 피부에 멍이 든 것 같은 색조변화가 있어 급성출혈성체장염을 의심하게 되었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이 합병증은 나를 비롯한 의료진을 긴장시켰고, 예상대로 소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긴박한 생사의 싸움을 시작했다. 더욱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일을 맞은 상현이의 모습은 더욱 안타까워보였다.

상현이의 상황을 체크하던 나는 밤새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차마 급성출혈성체장염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 채, '며칠 지켜보자'는 말로 얼버무리며 중환자실을 나오곤 했다. 그런데 그 말이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상현이는 커다란 위기를 넘기고 의식을 찾아갔고, 그 후 별 문제없이 계속 치료를 받아 올 7월 치료를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구홍희

종결했다. 입원전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다는 상현이는 이제 건강을 되찾아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다. 성격도 밝아졌고, 어느덧 어른스러워지기까지 했다.

상현아! 부모님 은혜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선생님은 네가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상현 화이팅!



세상나누기

KBS 라디오정보센터 POST 한국해운조합 '세상나누기'

매주 목요일 늦은 3시가 될 무렵, 대학로의 '제일생명의 집'을 찾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다.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

작년 10월, '세상나누기'의 대학로행은 시작되었다. '세상나누기'는 KBS라디오정보센터 POST 방송요원들의 모임인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을 찾아 헤매던 중 '백혈병어린이후원회'를 알게 되었고 매주 목요일 '제일생명의 집'을 찾게 되었다. 라디오를 통해 날씨와 교통정보 등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른 아침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송을 하다보면 오후쯤이면 차츰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매주 시간을 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목요일엔 사랑스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웠다.

지난 성탄절 즈음 카드만들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자신이 만든 카드 중 가장 예쁜 것을 골라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 눈물짓게 했고, 어떤 아이는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이 끝났다면서 종이접기로 작고 깜찍한 이별선물을 주기도 했다. 또 처음 만날 땐 쑥스러워서 엄마 뒤에 숨어 빼꼼히 쳐다보기만 하던 아이도 차츰 익숙해지면서 헤어져야 할 시간에 우리의 다리를 붙잡으며 나중에 가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팔뚝에 주사바늘 자국을 보이면서 주사를 많이 맞아 아파도 앞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뚜렷해진다.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위해 고심하지만 가끔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질 때가 많다. 제일생명의 집에 머무르는 아이

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번 주엔 무엇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까?', '이런 걸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따라줄까?' 등등. 처음 시작했을 땐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을 골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차츰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것에 제한이 있고, 도구 사용에 금새 지치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활동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활동은 미리 준비해 가야했다. 또 아이들은 금새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두시간 남짓 되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따분함을 덜어 주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아 무척 미안하다. 아이들과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아이들과 만나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은 헤어짐이다. 만남은 헤어짐이 따르는 것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치고 되돌아 올 때면 기분이 참 묘하다.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또 보자"라는 인사를 해보지만 이내 후회스러운 생각이 가슴에 자리를 잡는다. 빨리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인데.... 다음에 보자니??.....

치료받는 동안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꼭 회복되어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 풀잎 끝 이슬방울처럼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아이들... 소망이 있다면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완치잔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순수함을 한껏 머금은 그 눈빛들을 볼 수 있는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이번 주엔 '바람개비'를 만들어봐야겠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바람개비를 신나게 돌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랑이 모이는 곳

■ 이전 다 나왔어요!-제7회 백혈병·소아암 완치잔치

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연강홀에서 제7회 백혈병·소아암어린이 완치잔치를 열었다. 올해 치료를 마친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어린이를 축하하고, 치료중인 어린이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선사한 이번 일곱 번째 완치잔치는 스미스클라인비참코리아(대표이사 박정신)와 그락소웰컴(사장 김진호)의 후원으로 마련되어, 완치어린이 51가족과 치료중인 어린이 24가족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여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다. 메달 전달식에서는故 신동우 화백의 완치어린이 그림이 새겨진 완치메달이 치료를 마친 어린이들에게 수여되었고, 개그맨 김용만씨의 사회로 이어진 축하무대는 한양대무용과와 중앙대 성악과의 다솜회, 의료진, 돌리매직소년단, 완치성인의 축하공연과 완치어린이 대표의 편지글 낭독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오색 종이비행기에 자신의 소망과 치료중인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높이 날리며, 완치잔치를 마감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레고코리아(사장 이윤하)에서는 축하선물로 레고선물세트 150개를, 연강홀(극장장 조경환)은 공연장 무료대관을, 돌리매직소년단은 어린이간식을, OB베어스는 학용품을 축하선물로 보내왔다.



■ 화콜 사랑의 캠페인

중외제약에서는 종합감기약 화콜를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소아암어린이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 후원회에 전달하였다. 완치잔치의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전해진 화콜사랑의 기금은 3백만원이다.

■ OB정수근 후원금 전달

'도루 왕' OB베어스 정수근 선수는 백혈병어린이들을 위해 시즌 중 도루 1회시 3만원의 적립해 총 132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에 전달했고, 또한 완치잔치에 신정수, 강병규 선수와 함께 참석, 완치어린이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였다.

■ 이안 겨울을 푸른우리마을에서..

무료개방

푸른우리마을에 환아가족과 후원자가족을 초대 합니다.

후원회에서는 1-2월 두달간 '푸른우리마을 초청 기간'으로 정하고 1월은 현재 소아암과 재생불량성빈혈을 치료받고 있는 환아가족에게, 2월은 한뜻·천사백 후원자가족에게 푸른우리마을을 무료 개방합니다. 푸른우리마을의 통나무집의 정취아래 가족의 추억만들기를 계획하시는 환아가족 및 후원자가족은 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예약바랍니다.

(푸른우리마을 시설 및 이용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한해,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9월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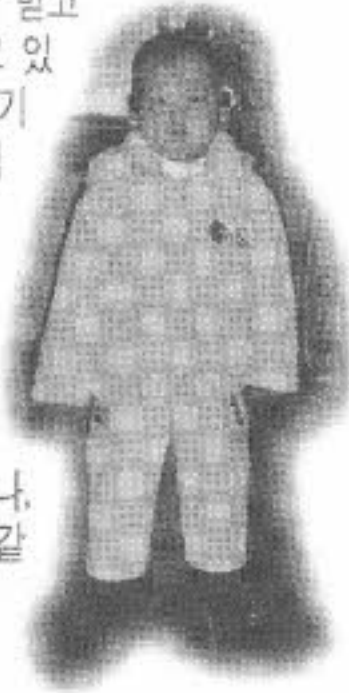
■ 황휘재 (남 / 만 2세)

신경아세포종 (진단 98년 5월) /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중.

초겨울 오후의 추운 날씨를 피해 휘재네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휘재와 부모님을 만났다.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온 가족들처럼 밝은 휘재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휘재의 발병 이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휘재네는 월세보증금을 빼고, 휘재와 엄마는 외가집에서, 아빠는 식당에서 생이별을 한 채 생활하고 있다. 수술비로 약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말에 앞이 난감했던 가족은 그나마 천사백수술비 지원 결정으로 한시름 놓긴 했지만, 나머지 800만원 비용이 큰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의료보호 1종' 혜택을 받게 되어 천사백수술비 지원금 700만원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0월 22일 수술을 받고 11월 초 퇴원한 후부터 외래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휘재. 곧 입원하여 수술결과를 확실히 알기 위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엄마는 휘재가 대견스럽고 고마울 뿐이라고 한다.

간호사선생님들이 퇴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병원에서 인기가 많은 휘재. 이 인기 많은 휘재는 아프면서 함께 살게 된 사촌누나, 여동생들과 어울린 탓에, 요즘 부쩍 여자아이같은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데..... 사진 속의 휘재는 위풍당당함, 그 자체다.



천사백운동에서 만난 천사

■ 천사백회원 주미정

날씨가 제법 쌀쌀해질 무렵 후원회로 천사백회원의 따뜻한 편지 한통이 배달되었다.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여러분들께

나뭇잎의 색깔이 짙어지는 걸 보니 겨울이 멀지 않은 것 같군요.

IMF 때문에 귀회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대구의 천사백후원자인 58개월 아들, 35개월 된 딸을 둔 주미정이에요. 아이가 받아보는 학습지회사의 사보를 통해 귀회를 알게되어 지난 4월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 가을호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후원금이 줄어들어 힘드신다는 소식을 접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군요.

귀회의 회보를 통해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란 걸 알았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씩이나 걸리는 치료기간으로 환아나 보호자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걸 귀회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IMF로 인한 남편의 실직으로 힘들지만 건강한 아이들이 있기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며 이겨낼 힘이 있어요. 하지만 백혈병환아와 보호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니 제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 (중략) ...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힘들지만 환아와 보호자들을 위해 힘내세요. 귀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일게요.

-1998년 10월 29일 주미정 드림-



천사백운동 참여계좌 추가 개설!!!

후원회에서는 후원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로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지로나 온라인 송금 등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후원자님들께서는 아래의 계좌를 참조하시고 지동이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후원방법이나 은행을 바꾸시는 후원자님들께서는 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2-766-7671~3)

- 경남은행 514-07-0175564
- 대구은행 044-05-179828-001
- 축협 043-11-13275-816

- 광주은행 200-107-315315
- 부산은행 070-01-021379-8
- 한미은행 100-59711-251

※ 예금주는 모두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입니다.

◆ 천사백운동 참여현황(98. 11. 30. 현재)

2,865명의 후원자께서 8,845구좌를 자동이체 해주고 계십니다.

◆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98. 9. 1. ~ 11. 31.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신 신규 후원자)

국민은행 (계좌번호 031-01-0414-356 / 예금주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주)인포넷월	강명순	강성종	강충원	곽현주	궁성진	권경란	권배건
권수현	권순이	권순자	권재출	권주현	김경도	김경옥	김경자
김규남	김기남	김기봉	김남하	김달수	김동일	김동훈	김명자
김석조	김성훈	김세원	김수정	김순희	김오래	김옥경	김용국
김용호	김은주	김은희	김일숙	김정숙	김정희	김종연	김진화
김혜자	김혜정	김흥기	김희남	김희연	김희원	남철우	맹순희
박귀철	박금숙	박남주	박순암	박순옥(목포시)	박운옥	박운보	박은숙
박정화	박진옥	박철호	박현호	배명희	배재이	백남현	서혜정
손천식	송선길	송희옥	신명재	신미연	신순오	신윤철	심문숙
안장호	안정옥	안치웅	안현수	양용호	연주흠	오경숙	오광세
오승정	오영수	오은정	오정미	오제홍	오혜인	유경상	윤문수
윤미영	윤민애	윤성운	윤한성	이 경	이계인	이덕승	이란희
이선웅	이영만	이영숙	이영한	이용섭	이용성	이윤정	이인숙
이정아	이정희	이제복	이택형	이항숙	임공주	임영희	임종식
장혜진	전매희	정덕렬	정덕심	정제찬	정종돌	정춘동	조규성
조달근	조득희	조미경	조순희	조은영	조재성	조정숙	조총길
조혜경	차경훈	천경미	최명숙	최상경	최재희	최정미	최종천
한호용	허원준	홍정혜	황운수				하유정

기업은행 (090-000260-04-022)

김명숙	고재석	권복희	권오춘	김경수	김성구	김용학	김정배	김차갑
김희연	나정혜	나학주	노종규	문종수	박희정	서재홍	선현자	성권래
양정금	오경주	우동섭	우삼남	이강희	이항심	임미경	정미용	정학섭
최성봉	최창수	하재현						

농 협 (029-01-170940)

(주)한국크	강경미	강성익	강원길	강의정	공순용	공홍표	권남우
권종선	김경숙	김경화	김광민	김대중	김덕호	김동희	김두환
김미라	김병봉	김보연	김상미	김상숙	김석종	김선정	김성분
김순자	김연자	김용익	김윤희	김의철	김정애	김정혜	김태석
김학은	김화영	김흥기	나상일	남경희	남정숙	남진희	류길현
류현미	문수형	문찬석	민순옥	박대순	박미경	박상희	박세진
박영덕	박영애	박원식	박은주	박정만	박조원	박준수	박진형
박필호	박호철	박홍선	방성호	변귀숙	서경일	손규환	송수경
신동규	신세진	신종범	신현강	안규태	안들옥	안호남	양정숙
양희준	예덕진	오계화	오순철	오은도	오정희	왕연옥	유금희
유영준	윤승희	윤은숙	이건택	이기옥	이동흡	이미경	이병곤
이순종	이순형	이쌍란	이안순	이원복	이윤해	이은주	이재욱
이종복	이철수	이해권	이해숙	이항숙	이현숙	이현식	이현자
임경희	임동재	임만수	임명진	임미자	임은이	임찬욱	임춘경
임형수	장석대	장송자	장지영	전현숙	정록환	정병호	정선화
정현정	정호원	조강석	조귀화	조미비	조창숙	주재경	주준식
최경순	최근복	최영옥	하창완	하태욱	한순필	한재국	허세영
홍성국							현명순

상업은행 (112-04-112571)

금동수	김미선	김복희	김영수	김은정	김정진	김진기	김행욱	김현진
김호산	나진희	명원식	박경희	박석현	박성용	박순조	석영석	송정아
심훈희	엄미정	연성규	오용환	유영원	이미자	이상돌	이성연	이일례
이제영	정미숙	정순화	정장현	정진훈	정현아	차은화	최경현	최현주
최희주								

서울은행 (16508-2945601)

구 홍 김명준 박정균 이은정 이천용

신한은행 (394-01-000694)

거봉기업	김도훈	김미자	김상태	김수정	김용준	김태형	김행심
김희진	박창옥	송은호	이상선	이민주	이보배	이재용	조치관
형인혁	황갑선						천진희

외환은행 (141-22-00799-6)

강금갑	구분숙	김경미	김경자	김시연	김현수	류정선	박해석	배명호
배예진	백석진	서옥희	서윤경	안영수	유수정	이성주	이소연	이창민
장국숙	정경호	조준완	조창우	지희숙	최기영	최영자	한창우	허수정

제일은행 (225-20-389060)

강명철	김명규	김윤동	김은경	김종수	김진영	김춘옥	김현영	김현희
박관우	서순심	송관영	송동근	신희숙	양숙경	양정아	오혜숙	유갑상
유안자	유형수	윤기섭	윤혜인	이경형	이은숙	정동양	정진원	
조에스더	최영봉	황의동						

조흥은행 (367-01-192434)

강종구	강희석	고현환	권정미	김강일	김건영	김기동	김명자	김찬남
김해나	문병초	문승배	박영철	박종관	서미애	성지은	손수진	손은주
손지영	송정은	심우용	안동석	오병원	오현주	윤석준	윤경화	윤광렬
이명근	이복희	이성용	이종진	이종희	이현자	장양순	전정화	전현규
정재일	조경일	조승미	조정연	최병기	최종열	최준영	한계수	황용래

주택은행 (488401-01-001485)

강경철	강남식	권영희	김권숙	김대열	김대용	김동영	김 산	김영진
김완식	김운찬	김 정	김정이	김종해	김창련	김태란	박관문	박대순
박성호	박은애	박정현	박재용	박호연	백진국	서영숙	서은희	서정화
송미숙	송정희	안중찬	염내현	우영희	유애숙	유혜영	이광희	이동택
이승수	이옥녀	이유진	이은이	이자남	이재호	이종명	이지선	임수만
장해두	재훈호	전진우	정명숙	정미화	정영일	정현숙	조양정	진영혜
차선희	천성호	최병오	허성애	홍 철	황동철			

하나은행 (144-121835-00105)

김명화 복민규 복은미 안명자 이은서 이정숙 이주현 정재돈 조병주

한일은행 (375-044183-13-001)

강수남	곽정하	권오덕	권 옥	권정진	김경동	김길영	김길용	김미강
김성철	김수현	김예정	김은정	김정연	김지훈	김현종	김홍수	남기연
박병택	박성범	박필숙	박은진	손분선	송병용	여정애	오원규	이상희
이순분	이정숙	이형례	임항빈	장여선	정향순	정희옥	조득원	조순권
최용원	최은희	한기용	홍순우	황인배				

우체국 (012989-0037222)



사랑의 모음터

◆ 새로 가입한 한뜻후원자 (98. 9/11 ~ 12/15)

오영진 심유정 심재구 심소희 구원모 이인행 전원주

◆ 사랑의 헌혈증 (99. 9/11 ~ 12/15)

김영준(8)	조순신·박소연(36)	박찬중(6)	손영주(2)
하계동성당(14)	홍석현(5)	박상욱(15)	김승휘(251)
최정기(7)	박명순(3)	김희연(3)	김현우(11)
최원석(51)	이효준(1)	이효준(1)	이효준(1)
류양희(1)	윤진주(20)	허영구(5)	unitel기차방(20)
류양희(1)	삼성할부금융(130)	우리두리사랑단(18)	박상혁(5)
무명(8)			무명(8)

◆ 특별후원금 및 후원품

10월

정릉교회(진료비 지정기탁) 3,000,000 이용석 자원봉사자(故 김현우 사진전) 587,000
익명 후원자(김승휘 지정기탁) 2,000,000

11월

정릉교회(진료비지원) 3,000,000 정인약품 200,000 중외제약(화콜사랑의 기금) 3,000,000

12월

스미스비참코리아(완치잔치 후원) 1,500,000 OB베어스 정수근선수(사랑의 도루) 1,320,000
김현지·김현경 자매 100,000

- 접시의 다수 주방용품 - 서울대병원 32병동 유순애 수간호사
- 소화제 및 소독약품류 - 서울대병원 약품관리계(이순실 계장)
- 식판·수저·컵 50세트와 커튼 - 서울중앙병원 한울타리회
- 목발 1조(제일생명의 집 비치) - 윤진주(골육종)
- 모자후원 - 장준혁·이후영 어머니
- 가발후원 - 동남교역(이태수 사장)
- 주방용 칼 외 주방용품 - 박혜영 이사
- 선풍기 5개 - 경희의료원 한마음회
- 수저 100세트 - 서울대병원 소아영양과
- 양념후원(제일생명의 집) - 봉사모임 사랑터
- 김치후원(제일생명의 집)-김우영(완치환아)부모
- 제일생명의 집 트리장식-제일생명 홍보팀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한 뜻 후 원 자 : 정서지원사업과 소아암관련 책자발간사업 후원자
(월회원/ 지로 또는 자동이체/ 후원금액 제한없음)
- 천사백후원자 : 불우 소아암환아 수술비지원 후원자 (월회원/ 자동이체/ 1구좌 1,400원)
- * 회원신청 및 문의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02. 766-7671)

후원회에서는 복사기와 자동카메라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기증하실 분은 후원회로 연락 주십시오.

발행인/안효섭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시의회약 제208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시 종로구 연건
동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8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